

임진왜란기(1592~1598) 출토 포의 형태분석과 일러스트화

이 주 영⁺ · 이 경 희*

동명대학교 전임강사⁺ · 부산대학교 박사과정*

Analysis and Illustration of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Po* Discovered During the period of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1592-1598)

Joo-Young Lee⁺ · Kyung-Hee Lee*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Tong Myoung University⁺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0. 5. 24, 심사(수정)일: 2010. 10. 1, 게재확정일: 2010. 10. 20)

ABSTRACT

In this study, the shapes of *po* worn by military officers who served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1592-1598) were investigated.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Various types of *po* that military officers usually wore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cludes *jikryeong*, *dapho*, *dopo*, *cheolik*, *aejjureum*, *jangeui*, *jungchimak* and *bangryeongpo*. Out of these types, *cheolik* and *jungchimak* were most often used by the officers. *Po* that were usually worn by military officer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 as above mentioned is characterized as no difference in length between the front and back of the costume, *kalgit* and a pair of coat strings which are directly attached to *po*. The sleeves of the costume are bean chaff-shaped in some cases and just narrowly shaped in other cases. Similarly, the outer *seop* of *po* was either double-layered or single-layered. For *jikryeong* and *dapho*, *mu* is usually type of outside wrinkle. For *dopo*, its rear *kit* has the inner hem whose right and left edges are usually distant, respectively by 6~16cm, from the back center of the costume. *Cheolik* and *aejjureum* usually have either fine or broad pleats. For *jangeui* and *jungchimak*, *mu* is usually trapezoid in shape. Among various types of *po* which were usually worn by military officer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 most representative are *jikryeong* from the tombs of *Bae Cheon Jo*, *dapho* from *Shin Yeo Gwan*, *dopo* from *general Bak* and *Bae Cheon Jo*, *cheolik* from *Nam Yoo* and *Cho Gyeong*, *aejjureum* from *Shin Yeo Gwan*, *jangeui* from *Kim Ham*, *jungchimak* from *Bae Cheon Jo* and *bangryeongpo* from *Cho Gyeong*.

Key words: *Japanese Invasion of Korea*(임진왜란), military officers(무관), *po*(포),
analysis formative characteristics(형태분석), illustration(일러스트화)

I. 서언

출토복식은 1970년대 말부터 꾸준히 발굴되어 오고 있는데, 발굴·조사방법이 보다 체계화되고 현대화됨으로써 피장자가 입고 있던 수의는 물론 그 보공품까지도 완전한 형태로 수거·복원되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출토복식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복식의 유형별·시기별 비교연구, 특정 시기와 특정 신분에 대한 미시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고 있고, 나아가 생물연대가 불분명한 분묘에서 출토된 복식에 대한 착용연대 추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출토복식 관련 연구 성과를 토대로 임진왜란기(1592~1598) 무관들의 묘에서 출토된 포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임진왜란기에 착용된 포의 일반적인 형태특성과 포제 문화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연구대상을 무관 묘에서 출토된 포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관의 활약상이 두드러졌던 임진왜란기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당시 문관과 무관의 묘에서 출토된 포의 종류와 형태가 대체로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는 바, 무관의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비교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출토복식에 관한 선행 연구 가운데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에 착용된 포에 관해서는 박성실·고부자·이은주·장인우·김명숙·권영숙·송미경·이상은·홍나영·이주영 등의 연구가 있다.¹⁾ 이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임진왜란에 직접 참전하였거나 임진왜란기에 활동했던 무관을 선별하면, 남유·배천조·김덕령·김함·조경·김약·이응해 등이고, 이들의 출토복식 중 곧은 것으로 된 포는 직령·답호·도포·철릭·액주름·장의·중치막·방령포 등이다. 이 중 답호와 액주름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출토사례가 감소하고, 도포·중치막·방령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들 포가 임진왜란기에 널리 착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타튼 임진왜란기에 착용되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신여관과 벽진이씨는 생물연대가 임진왜란기에 속하지 않고 전 박장군의 유물은 17세기 초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그들의 묘에서 출토된 포가 임진왜란기에 활동했던 다른 무관들의 포와 형태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신여관·벽진이씨·전 박장군의 포도 고찰 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임진왜란에 직접 참전하였거나 임진왜란기에 활동했던 무관의 묘에서 출토된 곧은 것으로 된 포 84점을 선별하여, 첫째 포의 유형별로 옷길·깃·걸쇠·소매·여밈·무·주름양식과 무모양·삼각무 유무·트임 정도 등을 중심으로 형태를 분석함으로써 임진왜란기에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형태 특성을 도출하고, 둘째 도출된 일반적인 형태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포를 선별하여 대표유물로 선정하고, 셋째 선정된 대표유물의 착용모습을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러스트화로 제작함으로써 일반인도 알아 볼 수 있는 시각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대표유물과 일러스트화는 향후 임진왜란기의 포를 복원·재현하는 연구와 포제 문화 전반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임진왜란기 무관 묘 출토 포의 유형별 유물수 내역

1. 임진왜란기에 활동했던 무관

임진왜란기(1592~1598)에 활동했던 무관은 남유·배천조·김덕령·김함·조경·김약·이응해 등 7명이다. 임진왜란과 관련된 이들의 대표적인 행력은 다음과 같다.

남유(?~1592)는 직제학(直提學) 남응룡(南應龍 1514~1555)의 아들로 태어나 무과에 급제하고 부평현감이 되었으며, 선조 31년(1598) 정유재란 중 나주목사로 있으면서 전라좌도수군절도사 이순신(李舜臣)을 도와 노량해전에서 적의 함선 13척을 무찌르는 등 분전(奮戰)하다가 전사하였다.²⁾

배천조(1532~?)는 임진왜란 때 정기룡(鄭起龍) 장군과 추풍령 전투에 참전하였고,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를 지냈다.³⁾

김덕령(1567~1596)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담양 부사 이경린(李景麟)과 장성현감 이귀(李貴)의 천거로 중군 명령이 내려졌고, 선조 26년(1593) 담양에서 의병을 일으켜 그 세력이 크게 떨치자 선조로부터 형조좌랑의 직함과 함께 충용장(忠勇將)의 군호를 받았다. 선조 27년(1594년)에는 의병을 정돈하고 선전관이 된 후 권울(權慄)의 휘하에서 의병장 곽재우(郭再祐)와 협력하여 여러 차례 왜병을 격파하였다.⁴⁾

김함(1562~1598)은 명종 18년(1562) 전라남도 영암에서 김수로의 58세손인 부사 김극희(金克禧)의 아들로 태어나 선조 16년(1583) 계미(癸未) 별시(別試) 병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이 되었다. 선조 31년(1598) 한산도에서 부친인 김극희와 함께 이순신장군의 휘하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였으며, 시신을 찾지 못하여 고향 영암 비래천 상고묘하에 의복을 넣고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⁵⁾

조경(1541~1609)은 1583년 무과에 급제하여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영남우도방어사(嶺南右道防禦使)가 되어 황간·추풍에서 싸웠으나 패배하였고, 이어 김천[金山]에서 왜적을 물리치다 부상을 입었으며, 이듬해 도원수 권울과 함께 행주싸움에서 대승하였다. 선조 37년(1604) 임진왜란 당시 공을 인정받아 선무공신(宣武功臣) 3등에 책록되어 풍양군(豊壤君)에 봉해졌다.⁶⁾

김약(1559~1625)은 조선 중기의 유학자로서 임진

왜란 때는 조현의 아들 완기(完基)와 함께 조현을 받들어 의병을 일으켰고, 정묘호란 때는 김장생의 막하에서 활약하였다.⁷⁾

이응해(1547~1626)는 선조 16년(1582)에 무과에 등과하고 훈련원 도정 청주·안주·울산 등 3읍에서 병사로 재직하였으며, 1596년에는 평양판관과 평안도 별장을 지냈다.⁸⁾

한편, 신여관(1530년대 초~1580년대 말 추정)과 벽진이씨(?~1585)의 경우 임진왜란기에 활동했던 무관은 아니지만 그들의 몰연도가 임진왜란기에 가깝고, 전 박장군의 경우 생물연대가 확실하지 않지만 그의 출토복식에 대해 김동옥은 임란직후,⁹⁾ 조효숙은 17세기 초라고 추정하고 있으므로¹⁰⁾ 연구자료의 수량적 문제를 고려하여 신여관·벽진이씨·전 박장군의 출토 포도 활용하고자 한다.

2. 포의 유형별 유물수 내역

임진왜란기에 활동했던 무관 10명의 출토복식 중 끈은 것으로 된 포의 종류와 유물수 내역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단, 진동부위가 깊게 파지면서 소매통의 가장 넓은 부위 치수가 진동치수의 2배 정도 되는 광수형 소매는 17세기 중·후반에 많이 출현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찰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표 1>에 의하면 임진왜란기에 무관이 착용했던

<표 1> 임진왜란기(1592~1598) 무관 묘 출토 포의 유형별 유물수

무관지	생년	좌	우	상	하	장	의	의	의	의	의	의	의
1	신여관	1530년대 초 -1580년대 말 추정	3	3		10	1	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	벽진이씨	? -1585	1				4						경북대학교박물관
3	남유	? -1592		2		3		1					의령남씨 충장공파종중
4	배천조	1532- ?	1		3					6			건국대학교박물관
5	김덕령	1567-1596				2		1					충장사 유물전시관
6	김함	1562-1598						3					전남 영암군
7	조경	1541-1609		2		3	3				1	1	서울역사박물관
8	전 박장군	17세기 초			1			2			2	1	충북대학교박물관
9	김약	1559-1625			1								안동대학교박물관
10	이응해	1547-1626	3		3	6			2	6	1		충주박물관
소계			8	7	8	24	8	9	2	15	3		
총계			84										

곧은 것으로 된 포는 직령·답호·도포·철릭·액주름·장의·창의·중치막·방령포 등 9종류이고, 유물 수는 총 84점이다. 포의 출현양상은 철릭(24점) > 중치막(15점) > 장의(9점) > 직령·도포·액주름(8점) > 답호(7점) > 방령포(3점) > 창의(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임진왜란기에 무관들에게 비교적 많이 착용된 포는 철릭과 중치막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표 1>을 보면 창의는 이응해(1547~1626)의 묘에서만 2점 출토되었는데,¹¹⁾ 현재로서는 최고(最古)의 창의 유물이다. 창의는 이응해의 창의를 시작으로 이후 김덕원(1634~1704)·남오성(1643~1712)·의원군(1661~1722)·이익정(1699~1782) 등의 묘에서 도 출토되었고, 이응해가 임진왜란 이후에도 오랫동안 생존하여 1626년에 돌아가셨던 분임을 고려해 볼 때 이응해의 창의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그의 몰년인 1626년 사이에 착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표 1>에서 제시한 9종류의 포제 중 창의를 제외한 직령·답호·도포·철릭·액주름·장의·중치막·방령포 등 8점을 중심으로 임진왜란기 포의 형태를 분석하고 대표유물을 선정하고자 한다.

Ⅲ. 임진왜란기 무관 묘 출토 포의 형태 분석과 대표유물 선정

1. 직령

현존하는 임진왜란기의 직령 유물은 신여관(1530년대 초~1580년대 말 추정)·벽진이씨(?~1585)·배천조(1532~?)·이응해(1547~1626)의 직령 총 8점이 있다. 형태고찰이 어려운 신여관의 직령 3점을 제외한 5점의 형태특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벽진이씨의 직령은 반파상태이므로 고찰 항목 중 일부를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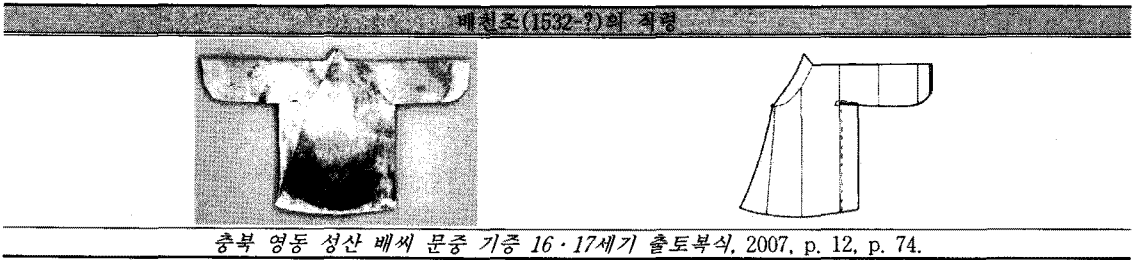
<표 2>와 직령 관련 보고서¹²⁾를 참고하여 임진왜란기 직령의 형태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옷길이양식은 전후동장형이고, 깃양식은 일반적인 칼깃이며 깃나비는 10~11.5cm 정도이다. 걸쇠양식은 이중걸쇠이고, 소매양식은 진동과 최대 소매통과의 치수 차이는 18cm 정도인 콩각지형¹³⁾이 일반적이다. 여밈양식은 직접부착형끈고름 1쌍인데 고름 나비는 2~3cm 정도이다. 무양식은 안팎주름형·밖주름형·뒤젓힘형이 공존하며,¹⁴⁾ 뒤젓힘형의 경우 무를 뒷길 쪽으로 넘겼을 뿐 고정하지는 않았다.

직령의 무양식은 시기 구분의 중요한 단서로서,

<표 2> 임진왜란기 직령의 형태특성

생물연대	옷길이양식		깃양식		걸쇠양식		소매양식		무양식			여밈양식	
	전단 후장형	전후 동장형	칼깃 이중깃	칼깃 일반깃	이중걸	단걸	착수형	콩각지형	안팎 주름형	밖 주름형	뒤 젓힘형	간접 부착형 끈고름	직접 부착형 끈고름
배천조 (1532- ?)		●		●	●			●		●			●
벽진이씨 (? -1585)	●						●		●				●
이응해 (1547-1626)		●		●		●		●			●		●
		●		●	●			●			●		●
		●		●	●			●			●		●
고찰가능 유물수	5		4		4		5		5			4	
양식별 출현 유물수	1	4	0	4	3	1	1	4	1	1	3	0	4
일반적 양식	전후동장형		칼깃(일반깃)		이중걸		콩각지형		공존			직접부착형 끈고름	

〈표 3〉 임진왜란기 직령의 대표유물



〈표 4〉 임진왜란기 답호의 형태특성

생물연대	옷길이양식		깃양식		걸림양식		무양식			어범양식	
	전단 후장형	전후 동장형	칼깃 이중깃	칼깃 일반깃	이중섀	단섀	안팎 주름형	밖 주름형	뒤 첫힘형	간접 부착형 끈고름	직접 부착형 끈고름
신여관 (1530년대 초- 1580년대 말)	●			●	●			●		●	
남유 (? -1592)	●			●	●		●				●
조경 (1541-1609)		●		●	●	●			●		●
고찰가능 유물수	6		6		6		6			6	
양식별 출현 유물수	3	3	0	6	5	1	2	2	2	1	5
일반적 양식	공존		칼깃(일반깃)		이중섀		공존			직접부착형 끈고름	

선행연구에 의하면 16세기 전반에는 안팎주름형 직령, 16세기 후반에는 밖주름형 직령, 17세기 전반에는 뒤첫힘형 직령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그런데 〈표 2〉를 보면 임진왜란기에는 세 유형이 공존하는 가운데 수치상으로 뒤첫힘형 직령이 주종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뒤첫힘형 직령 3점은 모두 이용해의 직령으로서 이용해의 물년이 1626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임진왜란 이후에 착용된 유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임진왜란기 직령의 무양식은 이주영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밖주름형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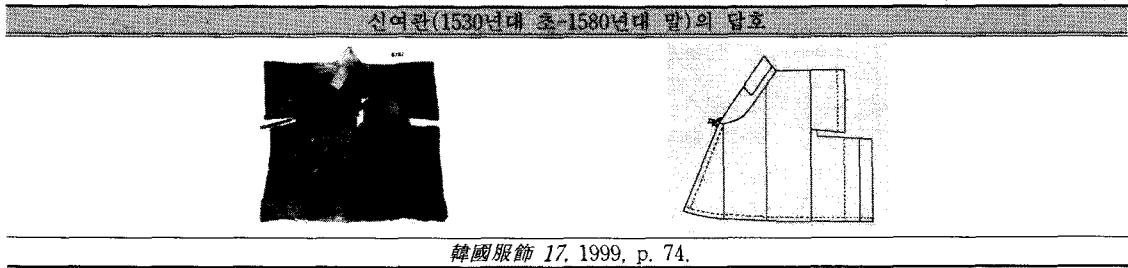
이상으로 임진왜란기 직령의 형태특성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는 유물은 배천조의 직령(밖주름형)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대표유물로 제안하고자 한다. 배천조 직령의 실물사진과 도식화는 〈표 3〉¹⁶⁾과 같다.

2. 답호

현존하는 임진왜란기의 답호는 신여관(1530년대 초~1580년대 말)·남유(?~1592)·조경(1541~1609)의 답호 총 7점이 있다. 형태고찰이 어려운 신여관의 답호 1점을 제외한 6점의 형태특성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와 답호 관련 보고서¹⁷⁾를 참고하여 임진왜란기 답호의 형태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옷길이양식은 전단후장형과 전후동장형이 공존하고 있는데, 송미경의 선행연구에서도 16세기 후반에는 앞뒤 길이 차이가 있는 답호와 없는 답호가 섞여 있다고 하였다.¹⁸⁾ 그런데 전단후장형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차이가 3cm 정도로 미미하고, 통상 직령과 답호의 형태가 동일한 양상으로 변화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임진왜란기의 답호 역시 직령과 마찬가지로

<표 5> 임진왜란기 담호의 대표유물



<표 6> 임진왜란기 도포의 형태특성

생물연대	옷길이양식		깃양식		걸설향식		소매양식		뒷길 안자락 양식		여밈양식	
	전단 후장형	전후 동장형	칼깃 이중깃	칼깃 일반깃	이중설향	단설향	착수형	콩각지형	벌어진형	맞닿은형	간접 부착형 끈고름	직접 부착형 끈고름
배천조(1532- ?)		●		●	●		●		●			●
전 박장군(17세기 초)		●		●	●	●		●	●			●
이응해(1547-1626)		●		●	●	●		●	●			●
김약(1559-1625)		●		●	●	●		●	●			●
고찰가능 유물수	8		8		8		8		8		6	
양식별 출현 유물수	0	8	0	8	3	5	1	7	6	2	0	6
일반적 양식	전후동장형		칼깃(일반깃)		단설향		콩각지형		벌어진형		직접부착형 끈고름	

전후동장형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깃양식은 일반적인 칼깃이며, 깃나비는 12-15cm 정도이다. 걸설향식은 이중설향이고, 소매양식은 반소매로 화장은 58~82cm로 편차가 큰 편이다. 여밈양식은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인데 고름의 나비는 2~3cm 정도이다. 무양식은 안팎주름형·밖주름형·뒤집힘형 등 세 가지 양식이 공존하는데, 담호의 무양식 역시 직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밖주름형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임진왜란기 담호의 형태특성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는 유물은 신여관의 담호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신여관의 담호는 전후동장형이 아니라 전단 후장형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앞뒤의 길이 차이가 불과 3cm 정도로 작아 전후동장형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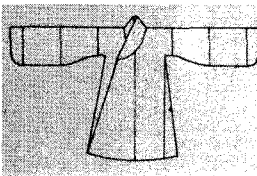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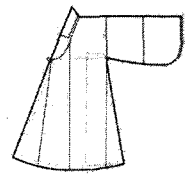
고 생각되므로 신여관의 담호(밖주름형)를 대표유물로 제안하고자 한다. 신여관 담호의 실물사진과 도식화는 <표 5>¹⁹⁾와 같다.

3. 도포

현존하는 임진왜란기의 도포는 배천조(1532~?)·전 박장군·김약(1559~1625)·이응해(1547~1626)의 도포 총 8점이 있으며, 형태특성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과 도포 관련 보고서²⁰⁾를 참고하여 임진왜란기 도포의 형태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옷길이양식은 전후동장형이고, 깃양식은 일반적인 칼깃이며, 깃나비는 10~12.5cm 정도이다. 걸설향식은

〈표 7〉 임진왜란기 도포의 대표유물

한판이 있는 홀도포 전 박장군(17세기 초기)의 도포		한판이 없는 겹도포 배천조(1532-?)의 도포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② -복식·자수편-, 2006, p. 320; 우리나라 16·17세기 출토복식, 1995, p. 50.		충북 영동 성산 배재 문중 기증 16·17세기 출토복식, 2007, p. 14, p. 76.	

단설희이고, 소매양식은 진동과 최대 소매통과의 치수 차이는 5.5~16cm 정도인 콩각지형이 일반적이다. 여밈양식은 직접부착형끈고름 1쌍인데 고름의 나비는 2~2.5cm, 길이는 45cm 정도이다.

뒷길안자락은 도포의 앞길에서 연결되어 뒷길 안쪽으로 넣은 자락을 말하는데, 이은주²¹⁾는 뒷길안자락을 도포의 유형을 분류하는 중요한 단서로 제시하였다. 이은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뒷길안자락은 뒷중심선에서 양쪽 자락이 벌어지는 정도에 따라 벌어진 형·맞닿은 형·겹친 형 등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임진왜란기에는 아직 겹친 형 도포가 없는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벌어진 형과 맞닿은 형 두 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표 4〉에 의하면 임진왜란기의 뒷길안자락 양식은 벌어진 형이 일반적이는데, 뒷중심선에서 양쪽 자락이 벌어진 치수는 작게는 6~7.5cm, 크게는 12.5~16cm 정도이다. 한편, 뒷길안자락을 뒷길의 안쪽에 고정할 때 배천조와 전 박장군의 홀도포 2점은 한판에 연결하여 고정하였고, 배천조·김약·이용해 겹도포 6점은 한판 없이 고정하였다. 즉 도포는 구성양식에 따라 한판의 유무가 결정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홀도포인 경우 대체로 한판이 있고, 겹도포인 경우 한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임진왜란기에는 한판이 있는 홀도포와 한판이 없는 겹도포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에서 제시한 임진왜란기 도포의 형태특성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는 유물은 한판이 있는 홀도포인 경우 전 박장군의 도포, 한판이 없는 겹도포인 경우 배천조의 도포라고 생각되며, 이를 대표유물로 제안

하고자 한다. 전 박장군과 배천조 도포의 실물사진과 도식화는 〈표 7〉²²⁾과 같다.

4. 첩릭

현존하는 임진왜란기의 첩릭은 신여관(1530년대 초~1580년대 말 추정)·남유(?~1592)·김덕령(1567~1596)·조경(1541~1609)·이용해(1547~1626)의 첩릭 총 24점이 있다. 형태고찰이 어려운 신여관의 첩릭 7점과 김덕령의 첩릭 1점을 제외한 16점의 형태특성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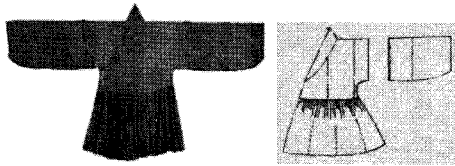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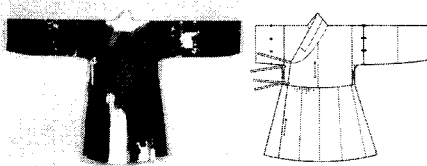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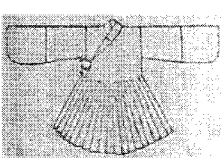
〈표 8〉과 첩릭 관련 보고서²³⁾를 참고하여 임진왜란기 첩릭의 형태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옷길이상식은 전후동장형이다. 고찰 가능한 유물수 총 15점 중 의상비(衣裳比)가 1:1~1:1.5인 유물은 9점, 1:1.5~1:2인 유물은 6점이므로 의상비 1:1.1~1:1.5가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동시대 문관이었던 강대호(1541~1624)의 경우 첩릭 8점의 의상비가 1:1.2~1:1.55의 범위로 나타나고,²⁴⁾ 『풍공유보도략(豊公遺寶圖略 1590)』에 묘사된 첩릭의 의상비 역시 1:1.3 정도로 추정되므로²⁵⁾ 임진왜란기 첩릭의 의상비는 1:1~1:1.5가 더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깃양식은 일반적인 칼깃인데, 깃나비는 일반깃의 경우 11~13cm 정도이고 이중깃의 경우 14cm 정도로 넓다. 결설희양식은 단설희이며, 소매양식은 착수형이 일반적이는데 콩각지형도 나타나고 있으며 콩각지형의 경우 진동과 최대 소매통과의 치수 차이는 7~15cm

<표 8> 임진왜란기 철릭의 형태특성

생물연대	옷길이양식		의상비		깃양식		견선탄양식		소매양식		치마주름양식		여밌양식	
	전단 후장형	전후 동장형	1:1 1:1.5	1:1.5 1:2	칼깃 이중깃	칼깃 일반깃	이중선탄	단선탄	착수형	몽각지 형	잔주름	너른 주름	간접 부착형 끈고름	직접 부착형 끈고름
신여관 (1530년대 초 -1580년대 말)		●	●			●		●	●		●			●
		●	●			●		●	●		●			●
		●	●			●		●	●		●			●
남유 (? -1592)		●	●		●			●	●		●			●
		●	●		●			●	●		●			●
		●	●		●			●	●		●			●
김덕령 (1567-1596)		●	●				●	●						
조경 (1541-1609)		●				●		●	●		●			●
		●	●			●		●	●			●		●
		●	●			●		●	●			●		●
이응해 (1547-16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찰가능 유물수	16		15		16		16		13		15		14	
양식별 출현 유물수	0	16	9	6	2	14	0	16	9	4	7	8	0	14
일반적 양식	전후동장형		의상비 1:1~1:1.5		칼깃 (일반깃)		단선탄		착수형		공존		직접부착형 끈고름	

<표 9> 임진왜란기 철릭의 대표유물

착수형 소매 + 잔주름 철릭	착수형 소매 + 너른주름 철릭	몽각지형 소매 + 너른주름 철릭
남유(? -1592)의 철릭	조경(1541-1609)의 철릭	『공공유보도라』의 철릭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② -부식 자수편-, 2006, p. 147; 충남 당진 남이흥장군 부식유물에 관한 연구, 2009, p. 162.	趙愷墓出土遺衣, 2003, pp. 100-101.	韓國服飾 12, 1994, p. 115

정도이다. 여밌양식은 직접부착형끈고름 2쌍인데 고름 나비는 2~3cm, 길이는 25~35cm 범위이다. 고름 바대는 고찰가능 유물 15점 중 6점에 사용되었는데,

공단·직금단·화문단·운보문단 등의 화려한 재질이 사용되었다. 치마의 주름양식은 0.1~0.3cm의 잔주름과 2~4cm의 너른주름이 공존하고 있다.

이상으로 임진왜란기 철릭의 형태특성을 살펴본 결과 의상비·소매모양·주름양식이 시기구분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의상비가 1:1~1:1.5이고 소매모양이 착수형이면서 잔주름으로 된 철릭과 너른주름으로 된 철릭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특성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는 유물은 남유의 철릭(잔주름)과 조경의 철릭(너른주름)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각각 대표유물로 제안하고자 한다. 남유와 조경 철릭의 실물사진과 도식화는 <표 9>(26)와 같다. 한편, 『풍공유보도략』에 묘사된 철릭은 1590년대에 그려진 것이므로 임진왜란기의 철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경의 철릭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소매모양이 콩각지형인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기에는 콩각지형이면서 너른주름으로 된 철릭도 착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5. 액주름

현존하는 임진왜란기의 액주름은 신여관(1530년대 초~1580년대 말 추정)·벽진이씨(?~1585)·조경(1541~1609)의 액주름 총 8점이 있으며, 형태특성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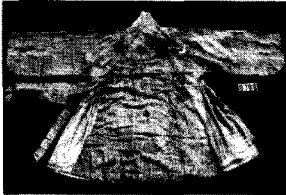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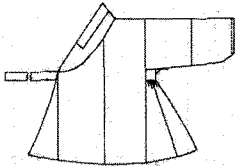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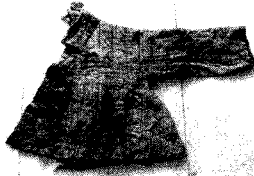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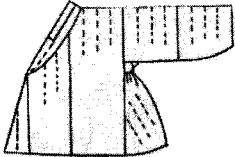
<표 10>과 액주름 관련 보고서²⁷⁾를 참고하여 임진왜란기 액주름의 형태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옷길이상식은 전후동장형이고, 깃양식은 일반적인 칼깃이며 깃나비는 10.5~13cm 정도이다. 겹선탄양식은 이중선탄, 소매양식은 착수형이 일반적이다. 여밈양식은 직접부착형끈고름 1쌍이 일반적인데, 고름나비는 3~5cm 정도이다. 고름 길이는 신여관과 조경의 액주름에서만 고찰할 수 있는데, 길이가 모두 117cm로서 동시대 다른 포와 달리 매우 긴 편이다. 긴 고름은 임진왜란기 포제 중 특히 액주름에 많이 사용되었다. 현존하는 임진왜란기 액주름 유물 중 고름 길이가 긴 예를 보면, 신연식(1519~1582)의 고름이 3×120cm, 송희중(16세기 후반 추정)의 고름이 3×126cm, 강대호(1541~1624)의 고름이 5.5×120cm 등이다. 액주름에 달린 긴 고름으로 가슴둘레를 한번 돌린 다음 고름을 매면 단단하게 여밀 수 있어서 활동량이 많은 상황에서 몸을 경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의 주름양식은 잔주름이 일반적이다. 남자 포에서 주름은 철릭의 치마부분과 액주름의 무 상부에서 볼 수 있는데, 예컨대 송효상(15세기 후반 추정)과 송희중(16세기 후반 추정)의 철릭과 액주름에 나타난 주름양식을 보면,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후반으로

<표 10> 임진왜란기 액주름의 형태특성

생물연대	옷길이상식		깃양식		겹선탄양식		소매양식		무 주름양식		여밈양식	
	전단 후장형	전후 동장형	칼깃 이중깃	칼깃 일반깃	이중선탄	단선탄	착수형	콩각지 형	잔주름	너른 주름	간접 부착형 끈고름	직접 부착형 끈고름
신여관 (1530년대 초- 1580년대 말)		●		●	●		●		●			●
벽진이씨 (? -1585)		●	●		●		●			●		●
		●		●	●		●		●			●
		●		●	●		●		●			
		●		●	●		●					
조경 (1541-1609)		●		●	●		●					●
		●		●	●		●					
		●		●	●		●					
고찰가능 유물수	8		8		8		8		5		4	
양식별 출현 유물수	0	8	1	7	8	0	7	1	4	1	0	4
일반적 양식	전후동장형		칼깃(일반깃)		이중선탄		콩각지형		잔주름		직접부착형 끈고름	

<표 11> 임진왜란기 액주름의 대표유물

신여관(1530년대 초-1580년대 말) 액주름		벽진이씨(?-1585) 액주름	
			
韓國服飾 17, 1999, p. 76.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1992, pp. 250-251.	

<표 12> 임진왜란기 장의의 형태특성

생물연대	옷길이양식		깃양식	걸선탄양식		소매양식		태수양식		무모양		삼각무 유무		여밈양식	
	전단 후장형	전후 동장형	목판깃	이중선탄	단선탄	착수형	콩각지형	끝동형	거들지형	사다리꼴형	삼각형	유	무	직접 부착형 끈고름	직접 부착형 끈고름
신여관 (1530년대초-1580년대말)		●	●	●		●		●		●		●			
남유 (? -1592)		●	●	●		●		●		●		●			●
김함 (1568-1598)		●	●	●		●		●		●		●			●
		●	●	●		●		●		●		●			●
		●	●	●		●		●		●		●			●
전 박장군 (17세기 초)		●	●	●		●		●		●		●			●
고찰가능 유물수	7		7	7		7		7		7		7		5	
양식별 출현 유물수	0	7	7	7	0	7	0	7	0	7	0	7	0	0	5
일반적 양식	전후동장형		목판깃	이중선탄		착수형		끝동형		사다리꼴형		유		직접 부착형 끈고름	

갈수록 잔주름에서 너른주름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주름나비는 잔주름의 경우 0.1~0.2cm, 너른주름의 경우 2cm 정도였다.²⁸⁾ 임진왜란기의 액주름은 잔주름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아직 너른주름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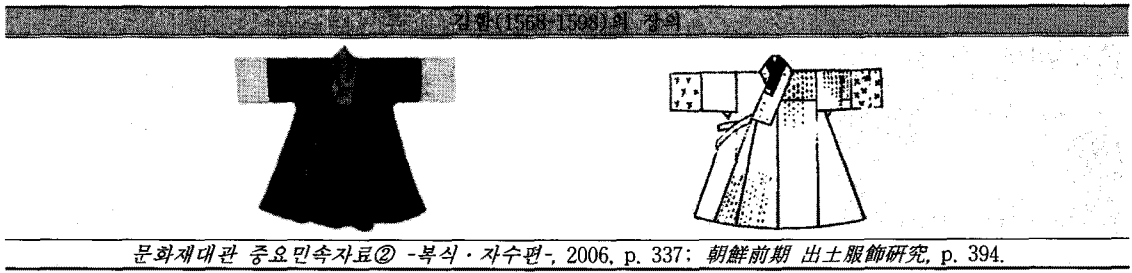
이상으로 임진왜란기 액주름의 형태특성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는 유물은 신여관의 액주름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대표유물로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임진왜란기 액주름 유물 총 5점 중 4점이 숨누비인 것으로 보아 벽진이씨의 숨누비 액주름도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신여관과 벽진이씨 액주름의 실물사진과 도식화는 <표 11>²⁹⁾과 같다.

6. 장의

현존하는 임진왜란기의 장의는 신여관(1530년대 초~1580년대 말 추정)·김덕령(1567~1596)·김함(1562~1598)·전 박장군(17세기 초)·남유(?~1592)의 장의 총 9점이 있다. 형태고찰이 어려운 신여관의 장의 1점과 김덕령의 장의 1점을 제외한 7점의 형태특성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와 장의 관련 보고서³⁰⁾를 참고하여 임진왜란기 장의의 형태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옷길이양식은 전후동장형이고, 깃양식은 깃이 길 안쪽으로 들어 달린 목판깃이며, 깃나비는 10~14cm 정

<표 13> 임진왜란기 장의의 대표유물



<표 14> 임진왜란기 중치마의 형태특성

생물연대	옷감이양식		기양식		겉선양식		소매양식		부포양		삼각무 유무		여밈양식	
	전단 후장형	전후 동상형	갈깃 이중깃	갈깃 일관깃	이중선	단선	착수형	콩각지형	사다리꼴형	삼각형	유	무	간접 부착형 끈고름	직접 부착형 끈고름
배천조 (15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경 (1541-1609)		●		●		●		●		●		●		
전 박장군 (17세기 초)		●		●		●		●		●		●		●
		●		●		●		●		●		●		●
이용해 (1547-16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찰가능 유물수	15		15		15		15		15		14		10	
양식별 출현 유물수	0	15	0	15	5	10	4	11	10	5	13	1	0	10
일반적 양식	전후동상형		갈깃(일반깃)		단선		콩각지형		사다리꼴형		유		직접부착형 끈고름	

도이다. 겉선양식은 이중선이고, 소매양식은 착수형이 일반적이다. 임진왜란기에는 장의의 소매 끝에 옷감을 이어붙인 끝동형의 태수(苔袖)를 주로 달았는데, 태수의 나비는 14~18cm 정도이다. 여밈양식은 직접부착형끈고름 1쌍인데 고름 나비는 2~3cm, 길이는 20cm 정도이다. 무모양은 모두 사다리꼴형이고, 겨드랑이 아래에 작은 삼각무가 달려 있는데 크기는

4×4cm에서 6×6cm 정도이다. 통상 포에 삼각무를 다는 이유는 착수형 또는 콩각지형 소매의 겨드랑이 부위가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³¹⁾ 장의에 사용된 삼각무는 목판깃·태수와 함께 장의만의 고유한 형태를 특징짓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다.

이상으로 임진왜란기 장의의 형태특성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는 유물은 김함의 장의라고 생각되며, 이

를 대표유물로 제안하고자 한다. 김함 장의의 실물사진과 도식화는 <표 13>³²⁾과 같다.

7. 중치막

현존하는 임진왜란기의 중치막은 배천조(1532~?)·전 박장군(17세기 초)·조경(1541~1609)·이응해(1547~1626)의 중치막 총 15점이 있으며, 형태특성을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와 중치막 관련 보고서³³⁾를 참고하여 임진왜란기 중치막의 형태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옷길이상식은 전후동장형이고, 깃양식은 일반적인 칼깃이며, 깃나비는 9~11cm 정도이다. 걸쇠양식은 단설향이고, 소매양식은 진동과 최대 소매통과의 치수 차이는 작게는 5~6cm, 크게는 9~10cm 정도인 콩각지형이 일반적이다. 여밈양식은 직접부착형끈고름 1쌍인데 고름 나비는 2~3cm, 길이는 40~54cm 정도이다.

중치막 15점은 모두 옆이 트여 있다. 옷길이에 대한 트임길이의 비율은 최소치와 최대치를 제외한 13점 중 40~50%가 7점, 50~56%가 6점으로서 옷길이의 1/2 정도 트여 있다. 양 옆의 무모양은 사다리꼴형·삼각형이 공존하는 가운데 사다리꼴형이 일반적이다. 삼각무는 15점 중 14점에 달려 있으며, 삼각무의 크기는 2×2cm·2.5×2.5cm·3.5×3.5cm·4×4cm·4.5×4.5cm 등으로 다양하다.

이상으로 임진왜란기 중치막의 형태특성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는 유물은 배천조의 중치막(사다리꼴형무)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대표유물로 제안하고자 한다. 배천조 중치막의 실물사진과 도식화는 <표 15>³⁴⁾와 같다.

8. 방령포(方領袍)

방령은 깃모양이 네모진 것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깃모양이 방령으로 된 옷은 학자에 따라 방령·방령의·방령상의·방령포 등으로 명명되고 있는데, 조선 초기부터 임진왜란기까지 출토된 사례를 보면, 정은(1481~1538 1점)·정응두(1508~1572 1점)·강대호(1541~1624 1점)·조경(1541~1609 1점)·이응해(1547~1626 2점)의 묘에서 총 6점이 출토되었다.³⁵⁾ 6점은 전장후단형 또는 전후동장형, 옷길이가 70~90cm 정도 또는 100~140cm 정도, 반소매 또는 긴소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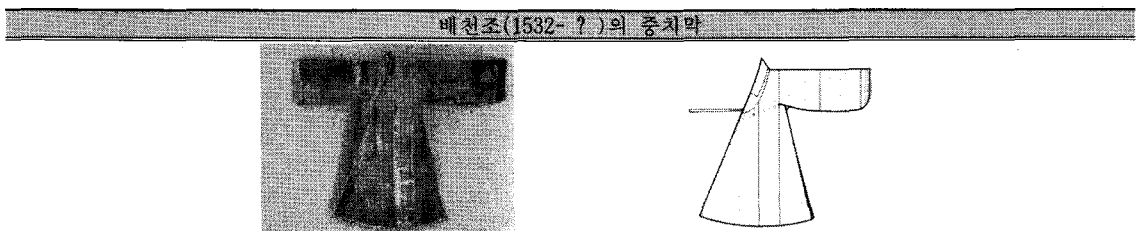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깃모양이 네모지면서 옷길이가 100~140cm 정도로 길고 소매가 반수 또는 장수인 옷을 편의상 '방령포'라 칭하고자 한다. 박성실과 김향미³⁶⁾는 방령포는 무관의 갑옷에서 그 원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무관들의 편단(便單)한 복식을 따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성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홍나영³⁷⁾은 남이홍의 방령포에 대해 방의(防衣)로서의 갑옷이거나 갑옷 밑에 입었던 하의일 가능성에 동의하였다.

임진왜란기 무관의 방령포는 조경·전 박장군·이응해의 방령포 3점이 있으며, 남이홍의 녹피방령포도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형태특성을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표 16>과 방령포 관련 보고서³⁸⁾를 참고하여 조경·전 박장군·이응해·남이홍의 방령포 4점을 중심으로 임진왜란기 방령포의 형태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옷길이상식은 전장후단형과 전후동장형이 공존하

<표 15> 임진왜란기 중치막의 대표유물



〈표 16〉 임진왜란기 방령포의 형태특성

생물연대	옷길이양식		깃양식		바대유무		소매양식		무모양		삼각무 유무		트임 위치		여름양식
	전장 후단형	전후 동장형	방령 이중깃	방령 일반깃	유	무	착수형	콩각지 형	사다리 꼴형	삼각형	유	무	옆	뒤	매듭 단추
조경 (1541-1609)	●		●		●		●		●		●		●		● 흔적
전 박장군 (17세기 초)	●			●		●	●								● (3)
이용해 (1547-1626)		●		●	●			●	●		●			●	● 흔적
남이홍 (1576-1627)		●	●		●		●		●		●			●	● (5)
고찰가능 유물수	4		4		4		4		3		3		3		4
양식별 출현 유물수	2	2	2	2	3	1	3	1	3	0	3	0	3	0	
일반적 양식	공존		공존		유		착수형		사다리꼴형		유		뒤		유

고 있다. 조경의 전장후단형 방령포에서 앞뒤 길이를 동일하게 하고 옷길이를 140cm 정도로 길게 하면 이용해의 방령포가 된다. 이용해의 모란문단방령포는 재질과 소매의 탈부착 여부를 제외하면 남이홍³⁹⁾의 녹피 방령포와 거의 동일한 형태이다. 따라서 방령포의 옷길이양식은 전장후단형에서 전후동장형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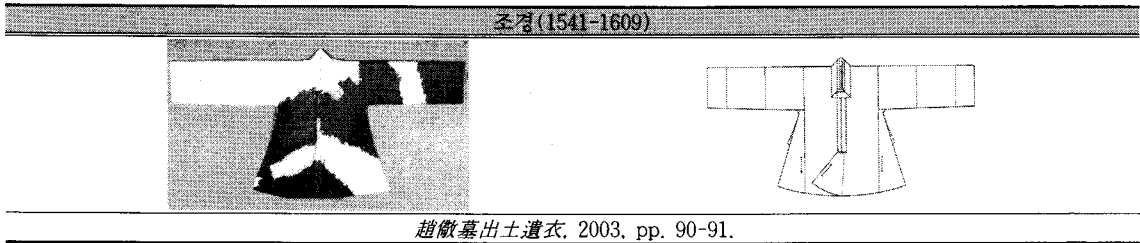
깃양식은 이중깃의 방령과 일반깃의 방령이 공존하고 있고, 바대⁴⁰⁾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대가 있는 조경·이용해·남이홍의 방령포 3점은 앞길 좌우의 모양이 동일하고, 착용시 조경과 이용해의 방령포는 바대와 걸쇠이 겹쳐지는 반면 남이홍의 방령포는 맞닿는 점이 다르다. 소매양식은 조경·전 박장군·남이홍의 것은 착수형이고, 이용해의 것은 콩각지형인 것으로 보아 이용해의 방령포가 다소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무와 삼각무가 없는 전 박장군의 방령포를 제외한 3점의 방령포는 모두 무모양이 사다리꼴형이고 겨드랑이 아래에 작은 삼각무가 달려 있는데, 삼각무의 크기는 3.5×3.5cm 또는 4.5×4.5cm 정도이다.

방령포의 뒷트임 유무는 옷길이양식과 관련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포의 아랫자락에 트임을 주는 것은 말을 타거나 앉거나 걸어 다닐 때 불편함이 없

도록 하기 위함인데, 조경과 전 박장군의 방령포는 앞길이는 길고 뒷길이는 짧은 전장후단형이므로 뒤트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용해와 남이홍의 방령포는 전후동장형이므로 뒷트임이 필요했을 것인데 트임길이는 이용해의 것은 74cm, 남이홍의 것은 86cm로서 옷길이의 1/2 정도이다. 여름양식은 매듭단추가 사용되었는데 총 3쌍인 경우 것에 1쌍·옆에 2쌍이 달렸고, 총 5쌍인 경우 것에 2쌍·바대에 3쌍이 달렸다.

이상으로 임진왜란기에는 조경·전박장군의 방령포와 같이 옷길이가 100cm 정도인 전장후단형의 방령포와 이용해·남이홍의 방령포와 같이 옷길이가 130~140cm 정도인 전후동장형의 방령포가 공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경대 이전까지는 옷길이가 70~80cm 정도인 전장후단형의 방령상의가 주종을 이루다가 조경대에는 옷길이가 114cm 정도로 길어졌을 뿐 여전히 전장후단형의 방령포가 존재하였으나, 이용해와 신경유(1581~1633)대에는 옷길이가 130~140cm 정도인 전후동장형의 방령포가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임진왜란기에는 옷길이가 100cm 정도인 전장후단형의 방령포가 주로 착용되었으나, 임란직후부터는 옷길이가 130~140cm 정도인 전후동장형의 방령포가 나타나기

<표 17> 임진왜란기 방령포의 대표유물



趙敬慕出土遺衣, 2003, pp. 90-91.

시작하여 점차 전후동장형의 방령포로 변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임진왜란기 방령포의 대표유물로 조경의 방령포를 제안하고자 하며, 조경 방령포의 실물사진과 도식화는 <표 17>⁴¹⁾과 같다.

할 때 전단후장형의 경우 뒷길이를, 전장후단형의 경우 앞길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2) 재질과 색상

<표 19>는 고찰가능한 포 유물 68점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제시한 재질을 정리한 것이다. <표 19>에 의하면 각 포마다 명주가 많이 사용되는 가운데 적은 비율이지만 무명도 사용되었으며, 특히 직령·철릭에는 모시, 답호·도포·철릭·장의·방령포에는 사·능·단도 사용되었다. 따라서 임진왜란기 포의 재질은 명주가 일반적인 가운데 무명·모시·사·능·단 등도 미미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포의 색상은 선행연구와 문헌기록을 참고하여 임진왜란기에 많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색상을 사용하였다.⁴²⁾ 직령은 홍색·답호는 초록색·

IV. 임진왜란기 무관 모 출토 포의 일러스트화

1. 일러스트화 제작을 위한 조건

1) 옷길이와 화장

일러스트화 제작시 옷길이와 화장은 출토복식 보고서에서 제시한 계측치의 평균을 구하여 참고하고, 이를 <표 18>에 정리하였다. 단, 옷길이의 평균을 구

<표 18> 임진왜란기 포의 옷길이와 화장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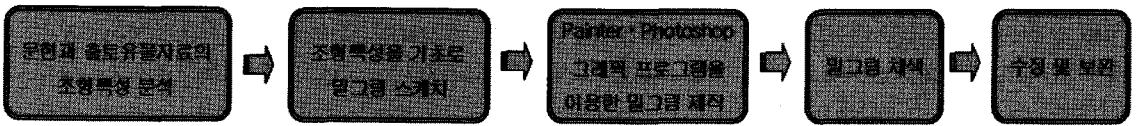
(단위: cm)

평균	직령	답호	도포	철릭	액주름	장의	중치막	방령포
옷길이(고찰유물수)	133.4(7점)	124.7(5점)	132.7(8점)	126.6(15점)	106.3(8점)	123.4(5점)	128.1(15점)	106(2점)
화장(고찰유물수)	121.9(7점)	66.8(6점)	110.4(8점)	117.7(13점)	102.4(8점)	87.2(5점)	98.9(15점)	123.7(3점)

<표 19> 임진왜란기 포의 재질

재질(고찰 유물수)	직령(7)	답호(6)	도포(8)	철릭(16)	액주름(8)	장의(5)	중치막(15)	방령포(3)
사	.	.	.	1
능	.	1	2
단	.	.	.	4	.	1	.	1
명주[주]	3	5	2	8	7	3	11	1
무명[목면]	1	.	4	.	1	1	4	1
모시	2	.	.	3
삼베	1

〈표 20〉 임진왜란기 흑립의 형태



〈그림 1〉 일러스트화 제작순서

도포는 연청색·철릭은 초록색·액주름은 청색·장의 다갈색·중치막은 옥색·방령포는 분홍색 등으로 채색하였다.

3) 흑립의 형태

임진왜란기에 착용된 흑립의 형태에 대해 강순제는 〈표 20-①〉⁴³⁾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양태 너비와 모자 높이의 비는 1:2 정도이다. 〈표 20-②〉⁴⁴⁾는 박형박이 재현한 선조대의 것으로 〈표 20-①〉과 동일하다. 양진숙은 선조 때에는 초년부터 모자가 높고 양태가 좁아지기 시작하여 말년까지 계속되었다고 하였는데,⁴⁵⁾ 〈표 20-①, ②〉와 같은 흑립을 연상케 한다. 그런데 〈표 20-③〉⁴⁶⁾은 안동 운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김성일(1538~1593)의 흑립으로서 조선중기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김성일의 흑립은 양태도 넓고 모자도 높은 형태로서 양태 너비와 모자 높이의 비가 1:1 정도로서 〈표 20-①, ②〉과 크게 다르다. 이처럼 양태도 넓고 모자도 높은 흑립은 인조 말부터 효종대까지 변함없이 사용되었다고 한다.⁴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20-①, ②〉의 흑립의 형태를 참고하여 일러스트화를 제작하고자 한다.

4) 인물의 자세와 신발

일러스트화 제작시 인물의 자세와 신발은 권오창

의 『인물화로 보는 조선시대 우리옷』을 참고하였다.⁴⁸⁾ 신발의 형태는 추후 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수정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2. 일러스트화 제작순서와 착장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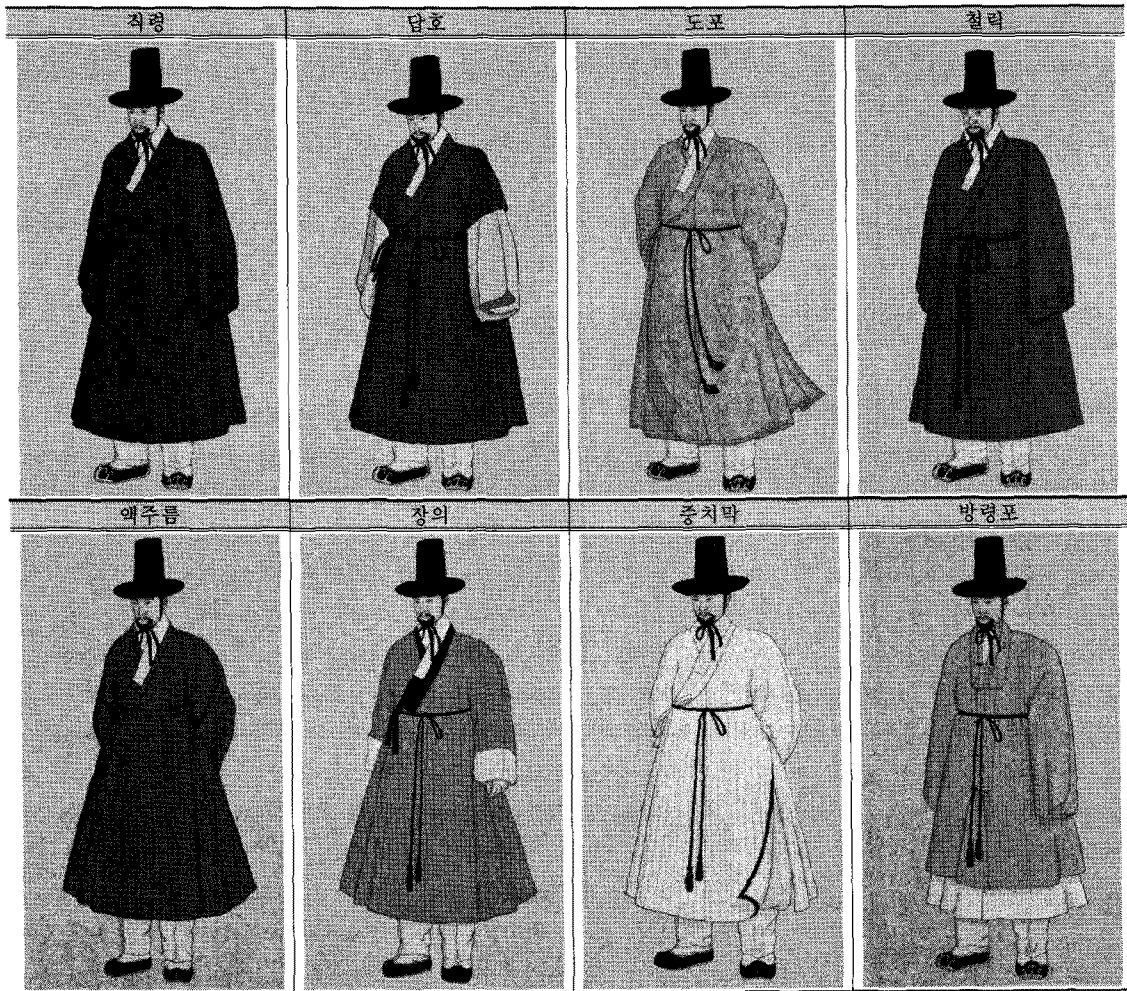
일러스트화는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 Painter와 Photoshop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제작순서는 〈그림 1〉과 같고, 착장모습은 〈표 21〉과 같다.

V. 결론

이상으로 임진왜란기(1592~1598)에 활동했던 무관의 출토복식 중 곧은 것으로 된 포를 선별하여 형태특성을 분석하고 대표 유물을 선정하였다. 대개 17세기 중·후반~18세기의 포는 전후동장형의 옷길이·둥그레 깃·단설·광수형의 소매·뒤젓힘형의 무·너른주름·넓고 긴 고름 등이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임진왜란기에는 이와 다른 양상으로 고찰되었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임진왜란에 직접 참전하였거나 임진왜란기 혹은 임란전후에 활동했던 무관은 신여관·벽진이씨·남유·배천조·김덕령·김함·조경·전 박장군·김약·이응해 등 10명이다. 이들이 착용했던 곧은 것으로 된 포는 직령·담호·도포·철릭·액주름·장의

〈표 21〉 임진왜란기 무관의 포 일러스트화



· 중치막·방령포 등 8종류이며, 유물수는 총 82점이다. 포의 출현 순위는 철릭(24점) > 중치막(15점) > 장의(9점) > 직령·도포·액주름(8점) > 답호(7점) > 방령포(3점) 등인데, 임진왜란기에 무관들에게 주로 착용된 포는 철릭과 중치막임을 알 수 있다.

2. 임진왜란기의 포는 전후동장형의 옷길이와 일반적인 칼깃이 일반적이다. 다만, 장의는 길 안쪽으로 들어 달린 목판이 일반적이고, 방령포는 이중깃의 방령과 일반깃의 방령이 공존한다. 소매양식은 직령·도포 등 사각형의 큰 무가 달린 포는 콩각지형, 액주름·장의 등 삼각형의 작은 무가 달린 포와 철릭

은 착수형이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점점 착수형에서 콩각지형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착수형 소매에서 콩각지형 소매로의 변화는 단령·직령·도포 등 사각형의 큰 무가 달린 포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⁴⁹⁾와도 일치한다. 길썬양식은 직령·답호·액주름·장의의 경우 이중깃, 도포·중치막의 경우 단깃이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점점 이중깃에서 단깃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17세기 전반 무렵에 이중깃에서 단깃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⁵⁰⁾와도 일치한다. 여밈양식은 나비 2~3cm·길이 25~35cm 정도인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이 일반적이고, 액주름의 경우 나비는 3~5.5cm 정도이지만 길이는 31~35cm 정도로 짧은 것도 있고 117cm 정도로 긴 것도 있다. 방령포의 경우 매듭단추 3쌍 또는 5쌍이 사용되었다.

3. 무양식은 직령·담호·도포에서 고찰할 수 있는데, 직령과 담호의 경우 박주름형이 일반적이다. 도포의 경우 뒷길안자락이 있는데, 뒷길안자락 일부를 겨드랑이 부위에서 주름잡고 나머지를 뒷길 안쪽에서 고정된 양식도 있으나, 주름잡지 않고 바로 뒷길 안쪽에 고정된 양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뒷길안자락은 홀도포인 경우 한판에 고정되었고, 겹도포인 경우 뒷길 안쪽에 고정되었는데, 뒷중심에서 좌우로 각각 6~16cm 정도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주름양식은 철릭의 치마와 액주름의 무 상부에서 고찰할 수 있는데, 잔주름과 너른주름이 공존하는 가운데 점점 잔주름에서 너른주름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주름양식의 변화는 남자 포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으로서 선행연구의 결과⁵¹⁾와도 일치한다. 잔주름의 간격은 철릭과 액주름 모두 0.1~0.2cm 정도이고, 너른주름의 간격은 철릭은 2~3.3cm 정도, 액주름은 1~2cm 정도이다.

5. 무모양은 장의와 중치막에서 고찰할 수 있는데, 장의는 모두 사다리꼴형 무이고, 중치막은 삼각형 무도 있으나 사다리꼴형 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장의와 중치막에는 겨드랑이 부위가 찢어지지 않도록 작은 삼각무를 달았는데, 크기는 장의의 경우 4×4cm에서 6×6cm 정도로 큰 편이고, 중치막의 경우 2×2cm, 2.5×2.5cm, 3.5×3.5cm, 4×4cm, 4.5×4.5cm 등으로 다양하다. 중치막의 경우 임진왜란기 이후 겨드랑이 부위에 작은 삼각무를 달지 않고 7자 방향으로 곱게 사뜨기하거나 2cm 정도 정교하게 박음질함으로써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도 했는데,⁵²⁾ 임진왜란기에는 아직 이러한 예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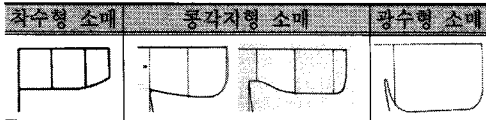
6. 임진왜란기 포의 형태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표유물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한다. 배천조의 직령(박주름형), 신여관의 담호(박주름형), 전 박장군의 홀도포(한판이 있는 형)·배천조의 겹도포(한판이 없는 형), 남유의 철릭(착수형 소매+잔주름형)·조경의 철릭(착수형 소매+너른주름형)·『풍공유보도

략』의 철릭(콩가지형 소매+너른주름형), 신여관의 액주름(잔주름형), 김합의 장의, 배천조의 중치막, 조경의 방령포(전장후단형) 등이다.

참고문헌

- 1) 朴聖實 (1992).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世宗大學校 大學院 家政學科 박사학위논문.
이은주 (1998). *道袍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능론적 분석*. 서울여대 박사학위논문.
장인우 (1999). 16·17세기 出土服飾과 風俗. *朝鮮時代 服飾研究*, 學研文化社.
고부자 (1999). 일영 출토 고령 신씨 유물 소고. *韓服 服飾*, 17.
서울역사박물관 (2003). *豊壤趙氏 奇贈 趙徽墓出土遺衣*.
이주영 (2001). *조선시대 직령(直領)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주영, 권영숙 (2003). 조선시대 직령의 유형과 특성. *服飾*, 53(6).
이주영, 권영숙 (2004). 직령의 부위별 형태특성과 상호간의 관련성 연구. *服飾*, 54(5).
김명숙 (2004). 충북 옥천 출토 17세기 복식 연구. *韓服文化*, 7(1).
이은주, 조효숙, 하명은 (2005). *길검승홍배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서울: 민속원.
권영숙, 이주영 (2006). 출토복식을 통해 본 임란전후 대전지역의 염습제도와 의생활 양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3).
대전광역시, 한국전통복식연구소 (2007). *대전 무탈동 출토 조선 초·중기 여산송씨 출토복식*.
송미경 (2007). 김학묘 유물을 통해 본 17세기 남자 포에 관한 연구. *服飾*, 57(7).
건국대학교 박물관 (2007). *충북 영동 성산 배씨 문중 기증 16·17세기 출토복식*.
홍나영 (2008). 출토복식을 통해서 본 조선시대 남자 편복포의 시대구분. *服飾*, 58(5).
이주영 (2008). 여산송씨일가 묘 출토 직령교임식 남자 포의 조형 특성. *服飾*, 58(9).
이주영 (2009). 여산송씨일가 묘 출토 남자 포의 가장 자리 구성법 연구. *服飾*, 59(9).
송미경 (2009). 조선시대 담호[塔胡] 연구 -17세기 전기까지. *服飾*, 59(10).
송미경 (2009). 조선시대 전기 철릭을 통해 본 진주류 씨 묘 출토 복식 연대 추정. *韓服文化*, 12(2).
- 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www.http://people.aks.ac.kr](http://people.aks.ac.kr)): 문화재청 (2006). 문화재단관 중요민속자료② - 복식·자수편. p. 143; 네이버 백과사전.
- 3) 건국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 p. 65.
- 4) 자료검색일 2010. 3. 9. 자료출처 [www.http://people.aks.ac.kr](http://people.aks.ac.kr): 문화재청. *앞의 책*. p. 283; 네이버 백과사전.
- 5) 자료검색일 2010. 3. 9. 자료출처 [www.http://people.aks.ac.kr](http://people.aks.ac.kr): *위의 책*, p. 337; 네이버 백과사전.
- 6) 자료검색일 2010. 3. 9. 자료출처 [www.http://people.aks.ac.kr](http://people.aks.ac.kr)

ks.ac.kr: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책*, pp. 39-40.
 7) 자료검색일 2010. 3. 9, 자료출처 www.http://people.ks.ac.kr: 이은주. *앞의 논문*, p. 123.; 네이버백과사전.
 8) 충주박물관 (2004). *이승해 장군묘 출토복식*. pp. 82-83.
 9) 김동욱 (1983). *壬亂前後의 出土服飾*. 충북대학교박물관 조사보고(8), p. 21.
 10) 문화재청. *앞의 책*, p. 319.
 11) 충주박물관. *앞의 책*, pp. 148-149.
 12) 건국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 p. 14; 朴聖實. *앞의 논문*, pp. 233-234, 244-245; 충주박물관. *앞의 책*, pp. 34-39, 134-138.
 13) 이주영은 출토 포의 소매모양은 시대구분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이에 포의 소매양식을 편이상 착수형·콩각지형·광수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착수형은 배래선이 진동점을 넘지 않는 형이고, 콩각지형과 광수형은 배래선이 진동점 아래로 내려오는데 진동부위가 파지 않는 것을 콩각지형이라 하였고, 진동부위가 파지는 것을 광수형이라 하였다(이주영 (2001). *앞의 논문*, p. 6).



14) 이주영은 무양식을 안주름형·안파주름형·박주름형·뒤젓힘형으로 분류하였다(*위의 논문*, pp. 71-76).
 15) *위의 논문*, pp. 102-105.
 16) 건국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 p. 12, p. 74.
 17)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9). *韓國服飾*, 17, pp. 74-75; 문화재청. *앞의 책*, pp. 146-147; 조선희 (2009). 충남 당진 남이홍 장군 복식유물에 관한 연구. *韓國文化*, 12(2), pp. 162-166;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책*, pp. 110-113.
 18) 송미경 (2009). *앞의 논문*. *服飾*, 59(10), p. 59.
 19)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앞의 책*, p. 74.
 20) 건국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 pp. 76-77; 장인우 (1995). *우리나라 16·17세기 출토복식*. 서울: 학연문화사, p. 50; 문화재청. *앞의 책*, pp. 319-320; 충주박물관. *앞의 책*, pp. 40-45, 138-141; 이은주. *앞의 논문*, pp. 122-124.
 21) 이은주. *위의 논문*, pp. 117-119.
 22) 문화재청. *앞의 책*, p. 320; 장인우 (1995). *앞의 책*, p. 50; 건국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 p. 14, p. 76.
 23)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앞의 책*, pp. 71-73; 문화재청. *앞의 책*, pp. 147-148; 조선희. *앞의 논문*, pp. 162-166; 문화재청. *앞의 책*, pp. 183-184;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책*, pp. 98-103; 충주박물관. *앞의 책*, pp. 22-25.
 2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韓國服飾*, 23, pp. 66-81.
 25)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4). *韓國服飾*, 12, p. 115; 장인우 (2010). 『풍공유보도략(豊公遺寶圖略)』의 복식사적 의미. *服飾*, 59(10), p. 125.
 26) 문화재청. *앞의 책*, p. 147; 조선희. *앞의 논문*, p.

162;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책*, pp. 100-10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4). *앞의 책*, p. 115.
 27)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9). *앞의 책*, p. 76; 朴聖實. *앞의 논문*, pp. 246-251; 이황조 (2006). *조선시대 服注疏의 조형적 특징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책*, pp. 104-109.
 28) 이주영 (2009). 여산송씨일가 묘 출토 남자 포의 조형 및 구성특성. *대전선사박물관 학술총서 옷섬 사이로 비치는 조선*, pp. 169-171.
 29)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9). *앞의 책*, p. 76; 朴聖實. *앞의 논문*, pp. 250-251.
 30) *위의 책*, p. 77; 문화재청. *앞의 책*, p. 148; 조선희. *앞의 논문*, pp. 162-166; 朴聖實. *위의 논문*, pp. 389-398; 문화재청. *앞의 책*, p. 338; 장인우 (1995). *앞의 책*, p. 53; 문화재청. *앞의 책*, p. 324; 충북대학교 박물관 (1983). *壬亂前後의 出土服飾 및 喪禮*. 충북대학교박물관 조사보고(8), pp. 51-52.
 31) 이주영, 권영숙 (2004). *앞의 논문*, p. 121.
 32) 문화재청. *앞의 책*, p. 337; 朴聖實. *앞의 논문*, p. 394.
 33) 단국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 pp. 78-83;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책*, pp. 118-119; 장인우 (1995). *앞의 책*, pp. 46-47; 문화재청. *위의 책*, pp. 322-323; 충주박물관. *앞의 책*, pp. 46-57, 141-147.
 34) 건국대학교 박물관. *위의 책*, p. 20, p. 82.
 35)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1996). *韓國服飾*, 16, p. 74; 朴聖實. *앞의 논문*, pp. 223-224;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2000). *韓國服飾*, 20, pp. 86-87;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책*, pp. 90-91; 충주박물관. *앞의 책*, pp. 18-21.
 36) 박성실, 김향미 (2002). 조선시대 기능적 馬上衣類의 실증적 고찰. *韓國服飾*, 20, pp. 49-50.
 37) 홍나영 (1999). 後短 方領半臂에 관한 고찰. *服飾*, 44, p. 124.
 38)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책*, pp. 90-91; 장인우 (1995). *앞의 책*, p. 48; 문화재청. *앞의 책*, pp. 321-322; 충주박물관. *앞의 책*, pp. 16-17; 문화재청. *앞의 책*, p. 144; 홍나영. *위의 논문*, p. 124.
 39) 남이홍(1576~1627)은 임진왜란 때 노랑해전에서 이순신과 함께 전사한 남양의 아들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조 35년(1602)에 무과에 급제하고, 이후 이팔의 난을 평정하는 등 많은 공을 세웠다(자료검색일 2010. 3. 9, 자료출처 http://www.cha.go.kr).
 40) 심연옥은 바대는 방령 아래에 곧바로 직선으로 이어진 대금형(對襟形) 맞깃이라고 하였다(문화재청. *앞의 책*, p. 144, 157, 381).
 41)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책*, pp. 90-91.
 42) 문화관광부, 한국복식문화 2000년 조직위원회 (2001). *우리옷 이천년*. 서울: 미술문화, pp. 71-74; 이은주. *앞의 논문*; 송미경 (2009). *앞의 논문*. *服飾*, 59(10); 이주영 (2001). *앞의 논문*.
 43) 강순제 (1997). 우리나라 관모의 변천. *국립민속박물관(편) 한국복식2천년*, 서울: 신유, p. 214.
 44) 한국국학진흥원 (2007). *기품과 절조의 미학* 갖. 유교 문화박물관 리플릿(2007 중요무형문화재 초청특별전

- 제4호 입자장 박창영), p. 11.
- 45) 양진숙 (2005). *조선시대 관모(冠帽) 사전*. 서울: 화산문화, p. 52.
- 46) 김영숙 편저 (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 p. 429.
- 47) 강순제. *앞의 논문*, p. 214; 양진숙. *앞의 책*, p. 52.
- 48) 권오창 (1998). *인물화로 보는 조선시대 우리옷*. 서울: 현암사.
- 49) 이주영 (2009). *앞의 논문*, p. 170.
- 50) 이주영 (2008). 여산송씨 일가 묘 출토 직령교임식 남자 포의 조형 특성. *服飾*, 58(9), p. 66.
- 51) 이주영 (2009). *앞의 논문*, p. 171.
- 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8). *앞의 책*, pp. 104-149.